

# “하루 세번 두컵씩 냉수를 마시죠”

동국대 농과대학장 역임한 육종학권위

## 朴 勝 萬 박사

대담 / 朴 澤 奎 <건국대 이과대학장/본지편집위원장>

### 89세로 의정부태생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거의 15년만에 뵙습니다. 저희 대학(건국대)에 출강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 건강하신 것 같아 더욱 반갑습니다. 특별한 건강의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1904년생이니, 만으로 89세 되는 셈이지요. 그저 하루 세번씩 한컵 또는 두컵 정도의 냉수를 마시는 것을 거르지 않고 있어요. 「물 한컵을 마신 다음 식사하는데 변비도 안 생기고 노화를 방지한다」는 나름대로의 건강신조를 지키고 있지요.

선생님께서도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나셔서 당시 대부분의 소년들처럼 보통학교에 늦게 입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주군 시돈면 장자리(長者里 현 의정부시 장안리)에서 자랐는데 7세때부터 서당에 다니다가 의정부에 처음으로 보통학교가 설립되어 이 학교에 다녔지요. 남녀공학으로 댕기 댕 학생들도 있었고 선생님은 사발하셨어요. 4년제 보통학교에 다니기 전부터 밭을 갈거나 밤을 따면서 농사일을 도왔지요.

### 선친은 眼科醫1호

선생님의 선친께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원로육종학자 박승만박사(좌측)가 박태규 본지편집위원장과 대담하고 있다.

안과의로서 당시 종로구 낙원동에서 개업하신 동계(東溪)선생님이신데 선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친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서당에도 다니셨고 구한말 합방된 후 당시 개화된 분으로서 한의학교(서울의대 전신)를 졸업하시고 국비로 일본에 유학가서 4년간 공부하신 우리나라 안과의사 제1호이셨어요. 선친(朴啓陽)께서 의학공부를 하시는 동안 어머님과 함께 지냈는데 보통학교에 입학할 때 나이가 13세였지요.

보통학교를 졸업하신 다음에 어느 학교로 진학하셨습니까?

제1고보(현, 경기고교)에 입학했는데 유진오박사가 1년 선배이시고 이홍규(변호사, 이태규박사 실제) 이창구(학술위원회 전 서울농대교수)가 있고 작고한 동기동창으로 최정우(국회 사무총장), 박철재박사(문교부 과학교육국장) 등이 있지요. 그런데 당시 제1고보가 4년제여서 제대(帝大)입학이 불가능했어요. 한성중, 용산중은 5년제인데 제1고보가 4년제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해서 동맹휴학을 했지요. 당시 선생님들께서도 미소를 띠우며 이 동맹휴학에 무언의 격려를 보내서 결국 5년제가 되었는데 교내에서 편입자격시험을 치르는



육종학의 대가 다케자끼(竹崎)교수도 농사시험장에 오래 계셨던 분이었어요.

### 33년 京都제대 졸업

학생 스스로 대학의 내용을 조사해서 입학을 결심했으니 격세지감이 있지요. 4년제 경도제대를 1933년에 졸업했어요.

듣고보니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떤 학과를 지망할 것인가. 이 모든 게 학력고사성적과 직결되는 요즘 세태와 비교하면 60년전 선생님의 대학과 전공선택의 방법은 한세기를 앞선 선각자의 면모 그대로라고 생각됩니다. 대학졸업후 귀국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셨나요?

교수가 그대로 남아 있으라고 했으나 조선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농업경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농업경영을 하려면 농업기술을 익혀야 한다. 대학에 남아 있는 것보다 실제적인 농업연구에 정진해야한다. 그런 생각으로 농업시험장에 가기로 결심했지요. 그런데 시험장 취직은 조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가능 상태, 백방으로 농업시험장에 취직하는 운동을 벌였지요. 수원고농의 학다교수에게 편지를 보내도 안된다는 회신을 받고 박영효후작을 움직여 달라고 선친에게 부탁하고 경기도지사 농정국장 등에게도 부탁하였지요. 어쨌던 구주제대 졸업후 촉탁으로 근무했던 분이 그만두면서 자리가 생겨서 겨우 입장(入場)허가가 났지요. 1933년부터 계속 근무했고 해방되던 해부터 4년정도 이리육종지장(育種支長)으로 근무했지요.

### 농산물검사소장 역임

선생님은 일제 때 농업시험장 기사를 거쳐 해방후 국립농업시험장부장장(副場長), 농산물검사소장 등 농업연구분야의 일선에서 활약하셨습니다. 이때를 회상

해프닝도 벌어졌지요. 나는 4년제로 하면 제1고보 20회가 되고 5년제로 하면 2회가 되지요. 그후 일본 야마구찌(山口)고교 이과에 입학하여 3년제였던 이 학교를 1930년에 졸업했어요.

선생님께서서는 당시 농학을 택하신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모노세끼에서 동경으로 가는 동안 일본 농촌이 우리나라 농촌과는 천양지차이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잘 정리된 논밭을 보니 아름답기까지 해서 우리나라 농촌과 비교하며 우울한 생각이 들었지요. 농촌개발에 앞장서겠다는 결심을 굳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기갈 등이라고나 할까?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공부 못하면... 「너는 커서 똥통이나 메야겠다」라는 욕을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농사나 지으라는 경멸 가득찬 비웃음이었지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있

는 당시 나 스스로 농촌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우선 자기극복이 최우선 과제였어요. 문학소설, 철학책을 읽으면서 내가 농학을 전공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으려고 했지요.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위인전 등 많은 책을 읽었는데 미국의 후버대통령전기를 읽고 자극을 받아서 드디어 농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에는 어느 대학에 가느냐, 도서관에 가서 학교안내책자를 모두 읽고 구성교수들의 면모, 연구의욕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대학을 결정했어요. 경도제국대학이 구주보다 농학부의 건립이 좀 늦었으나 신진교수들이 많았고 또 새로 채용된 교수들을 보면 농사시험장 출신이 대부분이어서 연구에 대단한 열의가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어요.

북해도대학 졸업후 경도대학의 교수가 된 유전학의 대가 기하라(木原)교수,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시험장에 근무할 때의 일인데 농업토목부 종예부였어요 쟁기질, 모 내는 일 등을 직접 했어요. 동료들이 질겅을 하면서 우리를 봐서라도 그러지 말라는 거였어요. 제국대출신이 팽이질을 해서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결과 모든 작업에 능통하게 됐지요.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회의에서 일 본인 장장(場長)이 복상이라고 하기에 큰 수치심을 느꼈지요 『여보시오 복상이 뭐요 박(朴)상(氏)인데』 나는 창씨개명을 끝내 안하고 『박씨』를 끝까지 지켰어요. 구주제대출신 일본인 기사가 『요보』라고 말을 걸면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어 그들 스스로 무안해서 얼굴색깔이 변했지요. 항상 조선인대표라는 신념으로, 투철한 민족정신을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 59년부터 東國大교수

동국대학교에는 언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1959년에 동국대 농과대 농학과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어요. 당시 56명의 교수가 있었는데 육종학, 생리학, 작물학을 담당했어요. 수도작의 비료분시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저서로는 육종법론(공편), 육종학강론 등이 있고, 56편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수도육종하는데 논둑에서만 보고 좋다. 나쁘다고 분리해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 눈에 밟고 들어가서 계통분리해야 참다운 육종이 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또 여러 곳에 시험장을 만들어서 실험해야 하며 평안도, 함경도 이남의 남쪽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대학강단에서의 일들을 회고하신다면...  
대학교수시절, 첫째시간에 우선 여러

분들이 대학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이라고 묻지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방법론을 배우는 것이라고 강조하지요. 인문계통뿐 아니라 철학, 과학 어느 분야건 모두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하지요. 대학졸업논문도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탐구, 문헌을 많이 보았느냐. 그런 것이 주안점이라고 강조했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이어서 방법만 옳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했어요.

특히 강의할 때는 교과서는 7할 그리고는 가치있는 책, 인문, 자연과학마다 특유의 철학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터득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기본이며 자유토론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알고 토론하는 풍토가 대학생활에서 필수적이라고 했지요.

## 증손까지 후손 30여명

선생님,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관이라고 할까요. 소박한 바람이라고 할런지, 그런 것을 다섯가지를 들면 좋은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는 것,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 뜻을 같이 하는 배필을 만나는 일,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일생동안 최선을 다하는 일,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점에서 많은 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1924년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만혼인 20세에 결혼했지요. 일본유학시절에 일시 귀국해서 시골에서 옛날식으로 했어요. 내자(任惠貞여사)는 결혼후에도 내가 일본에서 공부하는 34년동안 파주 보통학교에서 훈도(교사)를 지냈어요. 경성여고보를 졸업하고 서울사범대 연수과를 1년 다녔지요. 회혼하고도 10년 지났으니 결혼의 고희라고나 할지 9남매를 키웠는

데 증손까지 합해 30명이 넘지요. 백년해로의 비결이라면 이기심을 버리는 일, 선조를 잘 모시는 일, 말하자면 효도하는 일이겠지요. 그 다음 자식을 잘 키우고 교육을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인생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지요.

선생님, 어떻게 보면 대쪽같이 살아오고 사모님에 대한 애정도 지극해서서 오늘날 이처럼 내외분께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들로서도 깨닫는 바가 큼니다. 일제시대의 창씨개명 거부, 일본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경멸 등을 제국대출신 지성인으로서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물리치신 일 등이 많은 분들에게 큰 감명을 주리라 믿습니다. 학문과 연구이외의 생활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지키고 계신 생활철학, 좌우명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란 자식을 현명하게 키워 그로써 자기의 대를 잇는 것이라고 믿어요. 특별히 좌우명이라고 할 건 없고 가훈을 소개하지요. 첫째로 주부로서의 새 인격을 창조하는 가정, 다음으로 부부간의 정숙하고 명랑한 가정, 자식을 현명하게 키워 대를 잇고자 고행(苦行)하는 가정 등을 들 수 있지요.

그밖에 조상을 숭앙하고 효도하고 성신(誠信)을 실천하는 단란한 가정, 독서에 열중하여 고금에 능통하는 가정, 또한 젊어서 근검·성실·절약하여 부를 쌓아 늙어서 유유자적하는 가정에 행복이 깃든다. 이런 것이 평소 신조로 삼고 있는 가훈이지요.

선생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학문을 선택하는 안목, 그리고 선택한 학문을 위해 외곶 길을 그대로 걸어오신 선생님의 모습에서 강인한 선비의 기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건강하셔서 더 보람되고, 뜻있는 여생을 보내시길 아울러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